

서 면 답 변 서

(교육사회위원회)

일 자	질문의원	답 변 자	관련부서	비 고
94년 12월 2일 (제109회정기회)	이 병 두	도 지 사	도 로 과	장인기 의원·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

<질문내용>

- 도내 공사중 10년이상 걸린실적이 있는 공사내용
- 청주 - 제천간 국도 완공계획과 현재 어떤 접촉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서

<답변내용>

-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36호 청주 - 충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781억원을 투자하여 '83. 12월 착공하여 '92. 12월 준공되었음(10년간)
- 충주 - 제천간 국도4차선공사는 건설부에서 '90년부터 '99년까지 10개년 동안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에 총연장 29.5Km에 1,53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4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중에 있습니다.
 - 1공구 충주 - 송강구간(10.5Km / 교량 2개)은 토공 및 목행대교 상부공사중으로 진도는 40%이며
 - 2공구 송강 - 백운구간(8.8Km / 다릿재터널)은 실시설계가 미착수 상태이고
 - 3공구 백운 - 연박구간(6.4Km / 박달재터널)은 박달재터널 4차선 중에 상행선 2차선은 내부 공사중이며 진도는 77%이며
 - 4공구 연박 - 봉양구간(3.8Km)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총공사비 대비 33%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그 동안의 조치 사항은
충주 - 제천간 국도 확포장공사의 관건이 되는 2개 터널중 다릿재터널 착공 지연으로 박달재 터널이 개통된다 해도 교통체증은 여전할 것으로 사료되어 중앙 관계 부처에 누차(18회) 방문하여 다릿재터널이 박달재터널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.
앞으로 계속하여 중부내륙 동서간 중축을 이루는 유일한 산업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